

# 체크메이트팀, 로니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 [리포트]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진짜일까요?  
(그린워싱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 [웹 톤]

체크메이트와 함께 찌친환경 바로 알기



## 체크메이트

윤원형, 김성채, 김예기, 윤동건  
(안성초등학교 3,5학년)

## 각오 한마디!

체크메이트는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킹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를 둘 경우를 '체크'라고 하며 이때 상대가 무슨 방법을 써도 체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체스 게임에 있는 룰의 이름처럼 우리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도망칠 수 없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팀명입니다. 환경에 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우리의 잠깐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가짜 뉴스는 바로잡고, 오해와 편견은 진실을 알려 환경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꿔보고 싶습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진짜일까요? (그린워싱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최우리 기자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린워싱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제를 좁혀서 “00은 그린워싱인가 아닌가”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의 길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 기업들에서 나오는 친환경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제품이라 믿었던 것들이 겉모습만 친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될만한 것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으로만 판단해서 친환경의 문구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포장으로 친환경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겉모습만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나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나도 환경보호를 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친환경이라는 정보로 전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이지 않는 가짜입니다. 이러한 가짜 정보들을 체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철 기자

좋은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기사를 찾아 그린워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진짜 친환경일까?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친환경일까?”에 대해 기사나 논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이 맞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봅니다. 친환경이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아닌지 그리고 왜 친환경적으로 보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또한 친환경으로 보이기 위해 대체품으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눈속임,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의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벗겨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친환경의 의미와 그린워싱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 조사한다.

(네이버 설문을 이용)



최우리 기자

그린워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알기 위한 접근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리하여 친환경의 정확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가짜 뉴스로 인한 친환경 제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논문을 찾아가면서 조사와 의견 나눔)

세 번째, 우리가 직접 제품을 구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뜯어보고, 녹여보고 관찰해 봅니다.



최우리 기자

직접 경험해 검증하는 시도도 좋습니다.

네 번째, 환경전문가를 찾아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것들이 친환경이 아닌 가짜 친환경 제품으로 그린워싱이 맞는지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더 많은 사례를 배워봅니다.

(학교에 환경교육을 위해 오시는 환경강사님과 만남)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받기)

정재철 기자

환경교육을 직접 받아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무척 흥미롭고 건강해 보입니다. 응원합니다.<sup>^^</sup>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거쳐 그린워싱을 바로잡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관찰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워싱에 대해 알리고 친환경 제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모두가 친환경 제품이 아닌 친환경의 이름만 빌린 제품들도 있다는 것을 팩트체크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며, 기업의 과도한 욕심으로 친환경이 아닌 것들의 뒷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지금 환경에 대한 현실을 알려 바른 소비와 바른 실천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기사들 또는 사람과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들로부터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바르게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웹툰을 만들어 짧지만 명확하고, 남녀노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완성하고, 초, 중, 고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께 배포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활용, 각자의 SNS를 활용해 빠르게 전파하며, 웹툰을 간단히 요약해서 공공기관 및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그린워싱과 친환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설문조사를 한다. 우리가 조사한 친환경에 관한 오해 진실 그리고 그린워싱에 관한 팩트체크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 그린워싱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에 작은 목소리를 보낸다.

##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1. 가짜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사들 또한 많기 때문에 올바른 기사를 찾아 왜 아닌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2.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며 제품을 구입해 보며 제품 속과 겉의 그린워싱을 찾아 봅니다.



최우리 기자

직접 그린워싱 제품을 찾아나서는 노력이 이번 주제와 잘 어울립니다.

3.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안성의 환경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분들의 도움과 학교 환경교육을 하러 오시는 환경 강사님과 만나 환경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듣고 그린워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알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을 직접 질문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우리 기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찾아나서는 시도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환경 강사선생님들이 소개하는 전문가를 추가로 찾아가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4. 우리는 매년 환경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기 전 제대로 알고 체크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습니다.

# 체크해보기

- 물어 보기
- 찾아 보기
- 직접 해보기

## Q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강사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회수센터 홍보교육관 견학 & 교육관 담당자와의 대화
- 환경재단 홈페이지에서 질문
- 설문조사로 사람들의 의견 들어보기



**최우리 기자**  
그린워싱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만나고자 하는 전문가로 적당한 분들인지는 의문입니다.

##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먼저 우리는 환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학교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은 호기심으로만 끝이 났었고, 주변 캠페인들은 단순히 하루의 배움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끔찍한 환경에 대한 진실을 알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강사님께서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습관과 거짓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든 지금처럼 지금의

모습을 미래엔 보지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 제품은 어쩌면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우리 기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만 강사선생님들의 지적대로 친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을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을 찾아가서 직접 질문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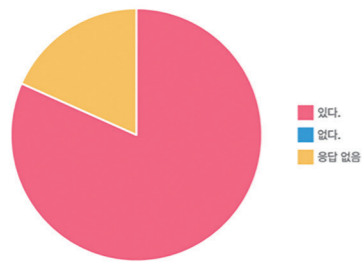
그러나 친환경과 그린워싱 제품을 구별하는 일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기도 하며 만들어지는 과정, 버려지는 과정을 모른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정보들은 사용해 보지 않는 한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사용한 사람의 후기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광고로 알 수 있는데 사용 후기도 기업이 돈을 주고 일부러 친환경적인 것만 보여주기도 하고, 광고의 모습을 그대로 믿거나, 친환경 마크만 붙어 있으면 믿고 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교육관을 견학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했던 제품의 포장지와 비슷한 것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조차 안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와 마트에서 보았던 친환경 소재, 친환경 제품들을 눈으로 직접 와서 보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제품을 샀을까요?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의 생활에 있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속임수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환경파괴를 하며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사람들이 소비해야 얻는 결과일 텐데 잠깐의 홍보 효과와 잠깐의 이익보다 진짜 올바른 친환경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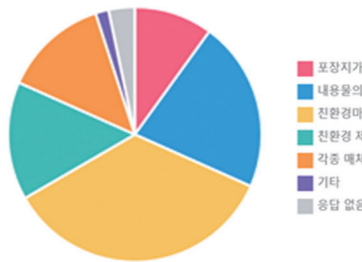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 활동이나 실천 경험이 없다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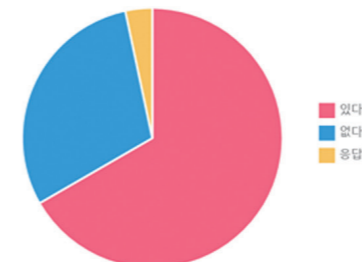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있다.	49 81.7%
없다.	0 0%
응답 없음	11 18.3%

▶ 구매할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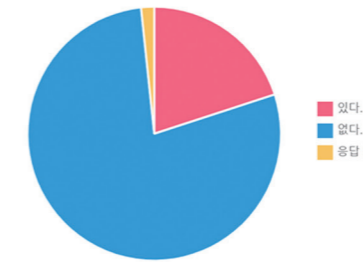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포장지가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	6 10%
내용물의 성분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제품	13 21.7%
친환경마크가 있는 제품	21 35%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는 제품	9 15%
각종 매체나 지인이 친환경 제품으로 추천하는 제품	8 13.3%
기타	1 1.7%
응답 없음	2 3.3%

▶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 버려진 후 또는 친환경 제품으로 인한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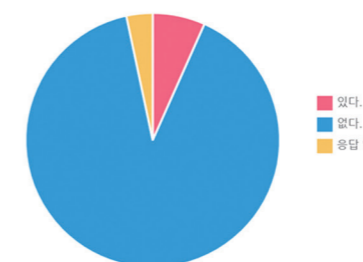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있다.	40 66.7%
없다.	18 30%
응답 없음	2 3.3%

▶ 그린워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응답수
있다.	12 20%
없다.	47 78.3%
응답 없음	1 1.7%

▶ 그린워싱에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응답	응답수
있다.	4 6.7%
없다.	54 90%
응답 없음	2 3.3%



## Q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트에서 친환경이라고 쓰여 있지만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환경이 맞는지 뜯어보고, 잘라보고, 소재를 파악하며 또 다른 대체품으로 인한 오염이 있는지 체크해봅니다. 우리가 구매한 제품은 친환경 세제와 친환경 생리대입니다.



##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실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생리대와 친환경 세제를 구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리대에는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생리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순면이라는 문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연에 가깝다.'라는 말을 넣어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착각이 들 수 있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최우리 기자**

그린워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가공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비판의식으로 관련 제품을 검증한 시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 우리가 쓰고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물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세제는 거의 모든 세제에 1등급과 친환경이라는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분표시를 알 수 있는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계면활성제 상당분 18%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계면활성제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물과 섞이지 않고 독성 성분이 있어서 집에서부터 흘러 우리의 식수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최우리 기자**

계면활성제가 얼마나 들어간 제품은 친환경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식향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찾아보니 이것은 허가된 보존료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용섭취량만을 섭취한 사람 중에서도 5%는 심한 흥분, 실금 증상,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DNA를 손상시켜 간 경변이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WHO도 안식향산나트륨에 대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안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 합성보존료의 유해성 - 안식향산나트륨 등. | 작성자 Prosperity



**최우리 기자**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팩트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과 플라스틱 컵은 사실 플라스틱을 없애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면에는 또 다른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그린워싱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우리 기자**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은 그린워싱 사례로 볼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 Q 인터넷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 스트레이트뉴스, [뉴스&] 유통가 ESG 열풍 속 그린워싱 역풍  
2022. 06. 13. 신용수 기자
- 경향신문, 나는 종이병이야 포장지 속 플라스틱병...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주의보  
2021. 10. 10. 김서영 기자

## Q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p><b>그린워싱이란?</b></p> <p>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인데요.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는데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에서 발표한 보고서 &lt;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들&gt;을 통해 점차 그린워싱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p> <p>환경오염 문제와 친환경에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늘면서 친환경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그린워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린워싱이 늘어나면 친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면서, 점차 환경과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린워싱을 조심해야 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상충 효과 감추기</td> <td>긍정적인 영향만을 확대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 감춤</td> </tr> <tr> <td>증거 불충분</td> <td>친환경 제품이라고 마땅히 증명할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td> </tr> <tr> <td>애매모호한 주장</td> <td>광범위한 용어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 사용</td> </tr> <tr> <td>관련성이 없는 주장</td> <td>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왜곡하여 주장함</td> </tr> <tr> <td>거짓말</td> <td>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도용함</td> </tr> <tr> <td>유해상품 정당화</td> <td>친환경적인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속이는 것</td> </tr> <tr> <td>부적절한 인증 라벨</td> <td>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증되지 않은 라벨 사용</td> </tr> </table>	상충 효과 감추기	긍정적인 영향만을 확대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 감춤	증거 불충분	친환경 제품이라고 마땅히 증명할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	애매모호한 주장	광범위한 용어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 사용	관련성이 없는 주장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왜곡하여 주장함	거짓말	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도용함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인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속이는 것	부적절한 인증 라벨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증되지 않은 라벨 사용	<p><b>친환경 라벨</b></p> <p>출처: 환경부</p> <p>어떤 제품이 친환경 제품일까요?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타제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거나 환경오염 영향이 적은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요.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무용품, 가정용품, 산업용품, 건설자재와 설비 등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p> <p>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등이 로고가 통합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도 통합된 로고를 사용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p> 
상충 효과 감추기	긍정적인 영향만을 확대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 감춤															
증거 불충분	친환경 제품이라고 마땅히 증명할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															
애매모호한 주장	광범위한 용어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 사용															
관련성이 없는 주장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왜곡하여 주장함															
거짓말	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도용함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인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속이는 것															
부적절한 인증 라벨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증되지 않은 라벨 사용															

[출처 : <https://blog.naver.com/ecocitydaegu/222787327205> 대구환경이야기]

그린워싱의 사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의 기준도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사와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린워싱이란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볼 수 있겠구나. 친환경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조금 더 진실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 결론 작성하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지금도 빙하는 녹고 동물들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어서 누가 누구의 것을 더 침범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만큼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들의 출현은 항상 불가피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겨난 변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남에게 미룰수록 그리고 내가 직접 겪어보거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뽕뽕 뭉친 정보들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눈속임과 겉으로 포장된 환경보호라는 말이 아닌 정말로 환경을 위한 일을 해야 하고, 친환경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구는 TV처럼 한 번 구매해 몇 년을 쓰고 망가지면 다시 다른 제품으로 바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 환경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보며 친환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로 진짜 친환경 제품을 고를 수 있고, 소비자가 꼼꼼히 따진다면 분명 기업들은 가짜 친환경 제품을 더는 생산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눈을 속여서 만든 제품들은 사지 않을 것이며, 가짜 친환경 제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정보 속 올바른 제품들이 늘어 갈 것입니다.



**최우리 기자**

소비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알아본 올바른 의미와 정확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실천해 준다면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지구의 기후변화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우리 기자

그린워싱에 속지 말자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들어 많은 곳에 알려 흥미롭게 다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누구나 편히 볼 수 있고, 단순하지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어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때 그린워싱과 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진정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미디어 콘텐츠

### 체크메이트와 함께 친친환경 바로 알기

**- 환경에 대한  
올바른 팩트체크! 정확한 정보  
체크메이트와 함께 지켜나가요! -**



웹툰



▲ 웹툰보러가기



\*이 결과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4회 정(소)년 체커톤 대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해야 하는 일이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꼭 지켜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환경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받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환경 제품들은 과연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에 맞는지 실험과 자료조사를 통해 팩트체크 해보며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된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정보와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팩트체크는 꼭 필요하고, 환경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 상세설명

방학은 언제나 즐겁고 신난다!

방학이다! 우리는 이번 방학에 환경에 대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환경에 대해 알고 싶다는 동건이도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소중한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파란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 네 명은 먼저 친환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친환경? 요즘 많이 듣기도 하고 마트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구이다. 또 TV광고는 자연에게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천연과 자연에 가까운 이라는 말로 우리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친환경일까? 그런데 동건이가 말한다 “그린워싱”이라고... 도대체 그린워싱이 뭐지?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고 진짜 친환경이 아닌 그린워싱 제품을 찾아보기도 하며 대표적인 “생분해비닐”이라는 친환경 비닐을 직접 땅에 묻어 관찰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땅에 묻힌 비닐을 꺼내 보았다. 놀랍게도 비닐은 그대로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분해비닐은 친환경이라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 가능했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직접 실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업이 그린워싱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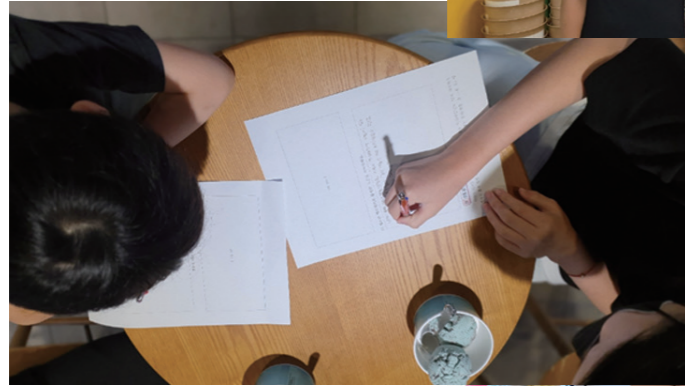
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바뀌야 한다. 기업의 광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고, 생각해보며 팩트체크하여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인식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면 기후변화를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팩트 체크 체크메이트와 함께 해요.

### 제작과정

웹툰을 제작하기 위한 첫 번째는 각 인물의 캐릭터였습니다. 여러 장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또 그리기 쉽게 만들어야 했고 먼저 종이에 예선에서 그렸던 것에서 조금 더 간단히 캐릭터를 그려 완성하였습니다. 그린 것을 색연필과 마카로 채색을 했지만 깔끔해 보이지 않아 테두리만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포토샵에서 색을 넣고 수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배경도 넣어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사와 함께 넣어보니 배경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배경을 아주 간단히만 넣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사진으로 담아 포토샵과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기가 그린 것을 포토샵을 할 줄 아는 원형이가 채색을 하고, 성체가 스토리와 그에 맞는 말을 넣는 것을 맡았고, 동건이는 파워포인트 말풍선을 활용해 넣는 것을 담당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포토샵은 할 줄 알았지만 색을 넣는데 힘들어 예기와 계속 의견을 나누었고 결국 다같이 하나 하나 끝이 날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라는 폴더에 “웹툰1, 웹툰1 수정, 웹툰1 미완성, 웹툰1\_ 완성, 웹툰 체크메이트” 등의 다양한 수정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웹툰은 간단하게 볼 수 있게 QR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활동사진



## 참여소감



### 윤원형 >>>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지키며 보호하는 일은 모두가 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체커톤의 주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너무 아쉽게 체커톤 대회를 치른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본선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본선에 오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동생과 함께 하면서 환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더욱 좋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기사를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 직접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친구들과 다 함께 만나 시간을 맞춰가며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력은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선에서 본선에 올라간다는 것도 엄청 기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되고 알리게 되어 너무 뿌듯했고, 찾는 과정에서 책을 보고, 직접 땅도 파면서 '하나의 올바른 정보를 얻기까지 어려운 일이니만큼 정말 올바른 정보로 행동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동건 >>>

저는 3학년이라서 형들과 누나가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다녔는데 직접 조사하고 해보면서 환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환경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친구들이 그린워싱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도 받고 가족들과 줍깅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배운대로 다음엔 조금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예기 >>>

우리 자연은 결코 사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보호

하지 않으면 사진 속에서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환경보호를 더 정확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함께 보호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요.

### 김성채 >>>

친구들과 함께 여러 달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환경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른 정보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거 “팩트야?”라는 의문을 생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엄청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전문가 피드백



### 정재철 기자

문제제기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팀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찾아보고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완성도 역시 상당히 높은 작품이라 생각되네요^^



### 최우리 기자

‘체크메이트팀’은 그린워싱의 문제점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사를 통해 그린워싱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본 점, 환경 전문가(강사)를 찾아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은 점, 환경 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직접 생리대와 주방세제를 구입하고 성분을 분석한 점 등은 매우 다각도로 그린워싱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의 홍보문구(자연에 가깝다 등)나 제품 성분(계면활성제 비율) 등을 확인한 노력은 기본적인 팩트체크의 시작입니다. 또한 기존 언론에서 지적한 이니스프리나 스타벅스의 제품이 그린워싱 사례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제를 좀 더 좁혀서 그린워싱 사례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고발하는 팩트체크 활동이 진행됐다면 정말 좋은 팩트체크 활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회사의 텔레비전 광고가 그린워싱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거나, 생분해 비닐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이 실제로 잘 썩어서 생분해가 되는 비닐 제품인지 따져보는 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 직접 질문을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6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도 더욱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60명 중 40명이 넘는 인원이 그린워싱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체크메이트팀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인지도 결론부분에 서술이 되어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